

세계도시

2006. 2. 20. 제137호

목 차

도시경영·경제

1. 지역간 실업률 격차 심화로 몸살 앓는 시드니 (시드니)
2. 오페라 하우스 보수비용 부담문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갈등 (시드니)
3. 2006년 북경市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동 (북경)

디지털도시

4.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범칙금 미납여부 정보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복지·문화

5. 공공도서관 이용무료화로 실업자와 사회부조대상자의 문화기본권 보장 (베를린)
6. 고령화와 인구감소사회 대비, '복지·건강도시 동경 비전' 수립 (동경)

도시환경

7.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건물 개발을 위해 대대적 투자 (런던)
8. 시민을 위해 도심 근교 산책 정보 매월 제공 (베를린)
9.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계획 지침 작성 (웨일즈)
10. 지속가능한 에너지 주택을 위한 디자인 지침 (런던)
11. 시드니만 일원 수산물에서 다이옥신 다량 검출로 조업 금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도시교통

12. 2007년 투르 드 프랑스(세계적 도로사이클 대회) 시작점으로 런던 선정 (런던)
13. 정확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현행 주차요금체계 변경 (베를린)
14.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대학생 무임 교통 서비스 실시 (뉴저지)
15. 장애인 주차증 약용사례 급증으로 골머리 앓는 시드니 (시드니)
16. 상해 푸둥 국제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섯 개의 운영센터로 나누어 관리 (상해)
17. 보행자와 자전거사용자를 위한 '정숙거리(Quiet Lane)' 지정 (영국)

도시계획·건설·주택

18. 인터넷에 적정 스포츠시설 규모를 산정해주는 계산기 설치 (런던)
19. 파리 도시개선 계획 수립 (프랑스)
20. 미관 해치는 휴대폰 통신기 설치, 법적으로 허가 (미국)
21.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발업자에게 '개발세금' 부과 (영국)

방재·안전

22. 모든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동사무소)에 응급구조센터 설치 (북경)

1. 지역간 실업률 격차 심화로 몸살 앓는 시드니 (시드니)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시드니 동북부와 서남부 지역간 실업률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드니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05년 12월에 집계된 시드니 서남부 리버풀-페어필드(Liverpool-Fairfield) 지역의 실업률이 전년도에 비해 2배가 넘는 9.9%를 기록했으며, 남부의 울릉공市도 작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9.5%를 기록한 데 비해 동부지역은 2.1%로 집계되어 작년과 수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드니 북부 근교(2.9%)나 북부 해안지역(3.2%), 서북부지역(3.2%)도 시드니 전체 평균 실업률 4.7%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멜번 연구소장 마크 우든(Mark Wooden) 교수는“노동시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지역에 사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대부분이며 이들 중 시드니 북부지역 출신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즈州에서 지난해 4월 이후 2만 2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실업률도 7월 이후 4.8%에서 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오페라 하우스 보수비용 부담문제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갈등 (시드니)

호주의 세계적 명물인 오페라 하우스가 개장한 지 39년만에 새단장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7억 달러로 예상되는 보수공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67년 지어진 이래 세계인의 이목을 끌어난 오페라 하우스는 관광명소로뿐만 아니라 환상적인 오페라 및 연극 등의 공연으로 화려한 모습을 뽐내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왔다. 시설 낙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페라 하우스 보수공사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긴 하나, 문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부담하느냐는 것이다.

오페라 하우스 보수에 소요될 7억 달러는 오페라 하우스 신축비용(약 1억 200만 달러)을 무려 6배 초과하는 비용이다. 이와 관련해 뉴사우스웨일즈州 정부는“연방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 한, 호주의 얼굴인 오페라 하우스의 보수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존 하워드 수상은 이번 보수공사를 지원할 의중이 있음을 내비치긴 했으나, “이번 보수계획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The Age 1월 2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1월 25일)

3. 2006년 북경市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동 (북경)

북경市 노동보장국 통계에 의하면 현재 북경市 기술인력은 186만 7000명으로 그 중 고급기능 인력 비율은 14.4%이다. 이런 배경에서 2006년 북경市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6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훈련과정에서 교육 후 재취업률이 60%에 이르게 하고 1만 명에 대한 창업훈련과정에서 창업성공률이 50% 이상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만 명에 대한 재직 중 보수교육을 통해 기사, 고급기사 등 1만 명의 고급 기술 인력을 배양하는 인재배양 프로그램, 10만 명의 농촌노동력에 대한 교육에 90% 이상의 교육수료 통과율을 목표로 하는 농촌노동력 취업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http://www.beijing.gov.cn/jj/bxjj/t324595.htm>)

디지털도시

4.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범칙금 미납여부 정보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市 경찰당국은 최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범칙금 납부 여부, 소환장 발부 여부, 각종 법률 위반사항 기록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한 사용료를 내면 정기적으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시 경찰당국이 2004년부터 추진해온 '통합정보관리시스템(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2MS)'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경찰당국은 특히 I2MS의 일환으로 범칙금 관련 데이터베이스센터를 설립했으며, 상습미납자 1만 여명은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www.joburg.org.za/2006/jan/jan17_fines.stm)

한줄 뉴스

- 북경市 2005년 지방재정수입 10조 8800억원 돌파
- 호주 국민들도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주민카드 도입 찬성
- 상해市 화이하이중로에, 1930년대 근대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한 명품샵 거리 조성
- 북경市, 식품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불량식품 소환제도 시행
- 북경市 신문·잡지판매소에서 수도·전기세 및 전화세 납부 가능

5. 공공도서관 이용무료화로 실업자와 사회부조대상자의 문화기본권 보장 (베를린)

독일 베를린州에서는 문화부장관 주도로 올해부터 실업자와 사회부조대상자가 베를린州 내 공공도서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공공도서관 이용조건을 바꿨다. 과거에는 도서관 신분증 명목으로 매년 5800원씩 지불해야 했다. 한편 금년 5월부터 실업자, 사회부조대상자, 연금생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베를린州 내의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연극, 오페라, 콘서트를 3400원만 내고 즐길 수 있는 '3유로 티켓'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베를린주 문화부 보도자료, 2005.12.20)

(<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5/12/20/33577/index.html>).

6.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 대비, '복지·건강도시 동경 비전' 수립 (동경)

동경도는 2월 6일, 본격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사회 도래에 따른 도 시책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복지·건강도시 동경 비전'을 수립했다. 복지와 보건의료 양 분야에 걸친 최초의 기본방침이 되는 이 '동경 비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과와 효율의 동시추구라는 기본개념에 따라 제시한 '새로운 자립'. 세부적으로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건강 만들기 시책 추진, 근로, 지역생활 등에 '그 사람다운 자립' 지향, 구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을 들고 있다.

둘째, 6개 분야 20개 중점 사업 전개. 6개 분야는 어린이가정종합센터(가칭) 정비(2009년 개설), 치매 대책의 종합적 추진(예방, 조기발견, 그룹홈), 유료 노인홈의 안심이용 체계(제3자 평가방법 활용), 장애인 지역생활지원·취로지원 3개년계획 추진, 당뇨병예방, 암예방, 정신건강 만들기 추진,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치료 대책의 종합적 추진이다.

셋째,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독립시설 개혁 강화. 기본 방침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철저히 추구하기 위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동경 비전'에는 도 복지보건국 관할 공공시설 80개를 대상으로 2009년까지 시행할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다.

(<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2/20g26500.htm>)

7.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건물 개발을 위한 대대적 투자 (런던)

런던시는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건물 개발과 2010년까지 수소로 가는 자동차 70대를 시범적으로 개발하는 데 약 372억원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건물설계 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고효율 건물 디자인에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정지역을 저이산화탄소배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검토 중이다.

(Planning, 2005, 1, 30)

>>> 전문가 검토의견

기후변화협약 이행과 관련한 협상과 대응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노력은 지방자치단체 몫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대도시들은 도시환경개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정책도 중시하는 추세다. 런던시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건물 개발정책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좋은 사례다. 서울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친환경건물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에너지절약 건물에 대한 표준지침서를 개발·보급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기존 건물을 에너지 소비부하가 적도록 유도하거나, 건물 신축시 친환경건물로 사전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서울시 대기과 기후변화팀이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친환경건물 인증제도를 역점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환경과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건물신축시 에너지 절약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8. 시민을 위해 도심 근교 산책 정보 매월 제공 (베를린)

독일 베를린시는 베를린 도심 및 근교에 있는 숲에서 산책을 즐기고 싶어하는 시민을 위해, 2004년 5월 이후 매월 1회 인터넷에서 산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통 3-4시간이 소요되는 산책코스를 소개하는 이 서비스는, 전 구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도와 함께 산책코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관련 사진, 특별히 눈여겨 볼만한 것들, 간식 및 휴



식 장소 설명 외에도, 산책 코스의 전체 길이 및 예상 소요시간, 연계 대중교통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2006년 1월 베를린 외곽에 위치한 Grunewald를 가로지르는 약 9km 가량 (예상 소요시간: 3시간 30분)의 산책코스를 소개한 바 있다.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forsten/ausflugstipps/index.shtml>)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forsten/ausflugstipps/de/2006/januar.shtml>)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시는 베를린처럼 한 달에 한 번 산책코스를 주기적으로 새로 개발해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요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정보를 그림과 함께 이미 제시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서울시는 문화체험관광, 도보관광, 서울의 발견 등 주제별 코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과 같이 숲에서의 산책 정보 제공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산재한 크고 작은 산의 산책코스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조용현 도시환경부 연구위원(ecoinfo@sdi.re.kr)

9.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계획 지침 작성 (웨일즈)

웨일즈 국회는 도시계획시스템을 통해 역사적인 자연경관유산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연계획 지침(Nature Planning Guidance)을 만들 계획이다. 이 지침은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과정에서 역사적 자연경관 보존, 동식물 서식지 보호, 보호 동식물에 대한 접근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이 계획은 특정지역 개발에 관여하는 개발업자,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가 등 관련 당사자들이 역사적 자연경관 보존과 친환경 개발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웨일즈 환경장관은 전했다. 이 계획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2006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Planning, 2005, 1, 24)

한줄 뉴스

- 북경市 상업지구 내 점자지도 설치
- 북경市 '11차 5개년계획'기간에 절수형 도시 실현방안 마련
- 에딘버러市 주택개발 시 에너지효율성 제고 지침서 활용
- 미국 조지아州 교통혼잡 완화와 민자유치를 기치로 하는 교통분야 투자사업 원칙 재조정
- 로스앤젤레스市 수도전력국(DWP), 수도 및 전력 절감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

10. 지속가능한 에너지주택을 위한 디자인 지침 (런던)

영국 정부는 2006년 2월, 주택개발에 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난방과 전기 그리고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최근 「디자인에 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ustainable Energy by Design)」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도시계획가, 개발업자, 투자자들이 친환경적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또한 깨끗하고 푸른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성장함을 강조하면서 획기적인 친환경 설계공법을 소개한다.



(www.rudi.net/udunews/index.cfm#renewable)

11. 시드니만 일원 수산물에서 다이옥신 다량검출로 조업 금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만 일원에 비상이 걸렸다. 시드니 하버 수산물에서 인체에 해독을 미치는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됐기 때문이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수산청은 2005년부터 이 일대 수산물에서 다량의 다이옥신을 검출했으며 특히 새우가 다이옥신에 크게 감염되었음을 확인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수산청은 1월 말부터 이 일원의 상업적 조업을 일체 중단시켰으며 아마추어 낚시인들에게도 잡힌 고기를 방출하고 먹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시드니 하버 고기의 다이옥신 함량은 세계 보건기구(WHO)의 허용기준치보다 월등히 높다. 수산청의 시드니 하버 일원의 조업 금지조치는 시드니 하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이옥신에 감염된 고기의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이 이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시드니 하버 일원의 조업금지 기간은 앞으로 3개월까지다. 가급적이면 이 기간에 수산물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다이옥신 감염 고기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이다. 수산청은 시드니 하버 수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감염 여부를 계속 조사해 조업재개나 식용허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1월 27일 호주 각 일간지 및 언론)

12. 2007년 투르 드 프랑스(세계적인 도로사이클 대회) 시작점으로 런던 선정 (런던)

2007년 7월에 열릴, 세계최고 권위의 투르 드 프랑스 싸이클 경기의 시작을 장식할 도시로 런던이 선정됐다. 1903년 시작된 투르 드 프랑스는 3주에 걸친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싸이클 경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며, 유럽에서는 월드컵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다. 런던시는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점차 증가하는 런던시의 자전거 이용을 확산시키면서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저력을 과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런던교통공사는 런던을 세계 수준의 자전거 도시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2000년 약 934억원에서 2005년 약 4조 78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해왔다. 100만명 이상이 지켜볼 세계대회 기간에 증가할 관광수의 등을 포함해 런던시는 총 9조 516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http://www.tourdefrancelondon.com/>)

(<http://www.lta.gov.uk/server/show/ConWebDoc.1371>)

13. 정확한 주차요금 정산을 위해 현행 주차요금체계 변경 (베를린)

베를린시는 주차요금기에 지불된 주차시간을, 이미 기계에 투입된 금액에 따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한다. 새로운 주차요금체계에 따르면, 예를 들어 정해진 주차지역에서 실제 주차한 시간보다 10센트가 더 지불되었다면, 주차증의 유효시간이 자동적으로 6분 더 연장된다. 새로운 주차요금체계를 위해서는 새 주차요금기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는 주차 세수(稅收)가 적은 구(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시는 더 긴 교체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핸드폰으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601/nachricht2139.html)

>>> 전문가 검토의견

주차요금기(parking meter)는 해외에서는 주로 노상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많이 운영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인으로 운영되는 유료노상주차가 많고, 일반무료 및 불법 노상주차도 많기 때문에 주차요금기 도입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요금기는 실제 주차시간보다 많이 징수하거나 무인작동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용자들이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주차요금기 이용액의 약 20%만이 징수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새로운, 정확한 주차요금체계는 이용자에게 요금지불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주어 이용수요 증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이용한 주차정보 및 요금징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주차문화와 주차질서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우승 도시교통부 연구위원(wooseung@sdi.re.kr)

14.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대학생 무임 교통 서비스 실시 (뉴저지)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은 미국 3위의 공공운송사업체로 현재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의 교통요지를 연결하는 240개 버스노선, 3개 경철도(light rail) 노선, 11개 철도노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월 24일 뉴저지 트랜짓은 대중교통시스템의 편리성을 홍보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1주일간 뉴저지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대상으로 무임교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서비스 기간에 뉴저지 소재 대학 재학생은 학생증이나 뉴저지 트랜짓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무임승차 쿠폰을 제시하면 뉴저지 트랜짓이 운행하는 버스, 경철도, 철도 서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 기간에 온라인을 통한 대학생 정기권 할인서비스(25%) 관측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http://www.njtransit.com/nn_press_release.jsp?PRESS_RELEASE_ID=2176)

15. 장애인 주차증 악용사례 급증으로 골머리 앓는 시드니 (시드니)

지체부자유자에게 허용되는 특별 주차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언론과 시민들이 시급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사우스웨일즈주 지체부자유자협회는 “이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단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체부자유자 주차증 악용 사례는 주차난이 심각한 시드니 시내나 주말 대형 마켓에서도 보편화돼 일부 상인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 마켓의 경우 상당수 상인들이 이를 소지, 핸디캡 존에서 하루 종일 무료주차한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드니 시내 미터기 주차지역에 주차한 차량의 반 정도가 지체부자유자 주차증을 부착해 2시간 내지 하루 종일 무료주차하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이중 운전자나 승객이 지체부자유자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중 시드니 캔트 스트리트의 미터 파킹지역에 주차한 14대 중 9대가 이 주차증을 사용했고 나폴레온 스트리트에서도 19대 중 9대가 이를 부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주차증 악용 사례를 보도하자 이 신문사에 불법이용 사례를 신고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2006.2월 1일)

16. 상해 푸둥 국제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섯 개의 운영센터로 나누어 관리 (상해)

상해 푸둥공항(上海浦東機場) 확장공사 이후 공항관리 문제는 공항건설 관계자에게 가장 중대한 사항이다. 푸둥공항에는 많은 활주로와 항공기 관련 건축물이 있어 공항 운영이 복잡하고 위험해서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상해공항그룹과 지휘부는 국제 허브공항으로 만드려는 목표로 출발한 푸둥공항의 향후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기능, 범위지역 및 전문성에 따라 향후 운영센터를 5개로 나누어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조치는 푸

동공항의 운영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홍치아오공항(虹口機場)과의 연계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상해市 전체의 공항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항뿐 아니라 각 항공사, 검역기관 등 모든 공항 운영기관의 종합 관리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항의 향후 운영방식은 주로 아시아 주요공항 즉 홍콩, 일본 및 한국 인천공항의 운영방식의 경험을 참조하여 전체 공항의 운행 효율, 서비스 품질 및 안전보장 능력의 통제와 함께 통일적인 협조관리, 기능, 범위지역 및 전문성에 따라, 공항운영센터(AOC), 관제운영센터(TOC), 교통관리센터(TMC), 시정시설관리센터(UMC)와 경찰지휘센터(PCC)의 다섯 개의 운영관리센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이 5개 센터가 역할을 나눠 담당하되 서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종합적인 조직 및 통제적 관리 시스템을 형성해나갈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http://www.shghj.gov.cn:8080/gh05/front/contentWord.php?contentId=7693>)

17. 보행자와 자전거사용자를 위한 '정숙거리(Quiet Lane)'지정 (영국)

2000년 영국 교통법(Transport Act)에 의해 시작된,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말이 자동차 소음과 위험에서 자유로운 '정숙거리(Quiet Lane)'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좀 더 법률적인 규제와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보호협회(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CPRE)는 '정숙거리'정책이 자동차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강제가 약하여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책을 법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교통부 대변인은 현재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정숙거리'지정에 대한 부가적인 권한이 지방정부에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Planning, 2006, 1, 25)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교통약자의 통행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보행우선구역 지정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는 현재 서울시에서 영국의 "정숙거리"지정 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큰 예산 지출 없이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이신혜 도시교통부 부연구위원(newsun@sdi.re.kr)

18. 인터넷에 적정 스포츠시설 규모를 산정해주는 계산기 설치 (런던)

영국스포츠협회(Sport England)는 각 지자체들이 도시계획과정에서 주거지 성장에 따라 필요한 스포츠시설 규모를 계산해주는 계산기(Sports Facility Calculator)를 협회 웹사이트에 설치했다. 이 계산기는 스포츠시설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에 따르는 개발비용까지 산정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협회는 전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스포츠 활동을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려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매년 사람들의 물리적 운동량을 1퍼센트씩 올린다는 목표와 도시계획 과정에서 스포츠 시설을 고려하게 하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Planning, 2006, 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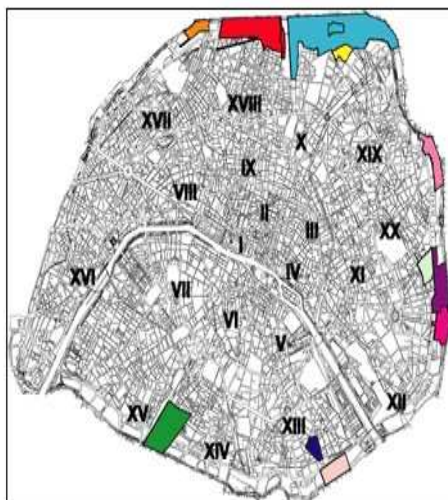
>>> 전문가 검토의견

도시의 스포츠시설 규모 산정을 위한 계산기의 운영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회적·물리적 환경을 각 지역사회의 규모에 맞게 구성하여 시민의 활발한 스포츠시설 이용과 스포츠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서울시 체육과와 건강도시 추진반에서 이 계산기를 만들어 해당 구청에서 활용하게 한다면 각 자치구별로 부족한 스포츠시설의 규모 파악이 용이하고 산출된 개발비용으로 부족한 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체계적인 스포츠 시설확충은 시민의 스포츠시설 이용과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기초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이 계산기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조사와 검토절차가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 노은이 도시사회부 부연구위원(eyn@sdi.re.kr)

19. 파리 도시개선 계획 수립 (프랑스)

파리시는 시내 11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일련의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도시개선 프로젝트'(Grand Projet de Renouvellement Urbain, GRPU)라는 이름으로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약 11만 명의 지역 주민과 7



- Les Olympiades (XIII)
- Bédier - Porte d'Ivry - Boutroux (XIII)
- Plaisance - Porte de Vanves (XIV)
- Porte Pouchet (XVII)
- Porte Montmartre - Porte de Clignancourt et Secteur Porte des Poissonniers (XVIII)
- Secteur Paris Nord-Est (XVIII)
- Cité Michelet (XIX)
- Saint Blaise (XX)
- Porte de Montreuil - La Tour du Pin (XX)
- Porte de Vincennes (XII et XX)
- Porte des Lilas (XX)

개 구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특히 파리 북부의 뽀흐뜨 드 끌리냥꾸흐(porte de Clignancourt), 동부의 뽀흐뜨 드 몽뜨뢰이(porte de Montreuil) 그리고 남부의 뽀레장스 - 뽀흐뜨 드 방브(Plaisance - Porte de Vanves), 레 올림피아드(Le Olympiades)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시는 현재 지역의 건설공사, 도시정비, 고용창출, 주민안전문제 등을 주제로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올해 이 사업계획을 위해 편성된 파리 시 예산은 2592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약 432억원 증가했다.

(www.grandprojets.paris.fr)

20. 미관 해치는 휴대폰 통신기 설치, 법적으로 허가 (미국)

미연방법원 순회재판소는 단순 미관상의 이유로 건물허가를 보류할 수 있게 한 '라 캐나다 플린트리지(La Canada Flintridge) 법'에 일부무효판결을 내렸다. 로스앤젤레스시는 지금까지 이 법규에 따라 휴대폰 통신기가 미관에 해를 끼친다고 여겨지는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원활한 통신을 위해 단순하게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휴대폰 통신기 설치 저지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

(Los Angeles Times, 2006. 01. 18)

21. 사회적 인프라구축을 위해 개발업자에게 '개발세금' 부과 (영국)

영국정부와 밀턴킨즈 파트너십은 개발업자들이 성장지역을 개발할 경우 집 한 채당 3120만원의 세금을 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세금(Development Tax)'과 개발지역에 필요한 학교, 병원 그리고 경제적인 주택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하면, 개발업자는 집 한 채당 6250만원에 해당되는 '개발세금'을 내게 된다. 이 정책은 밀턴킨즈 파트너십과 정부가 성장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초기비용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까지 이 정책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Regeneration, 2005, 1, 6)

22. 모든 가도판사처(街道辦事處: 동사무소)에 응급구조센터 설치 (북경)

북경시 위생국 발표에 의하면 금년 북경시의 모든 가도판사처(우리의 동사무소 해당)에 1개 이상의 응급구조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응급구조에 걸리는 평균 13분의 시간을 2007년에는 6분 내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경시에는 31개의 응급구조센터가 있으며 해당 센터의 활동반경은 4~7Km로 평균 13분의 출동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런 평균시간은 선진국의 5분에 비하면 차이가 크게 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구조센터를 136개로 확충한다. 현재 북경시에는 136개의 가도판사처가 있으므로 이런 조치는 1개 가도판사처에 1개의 응급구조센터를 설치한다는 의미이다. 1곳의 가도판사처에 최소 1대의 응급구조차량과 4명의 의사, 4명의 간호사, 4명의 차량기사가 근무하게 된다. 이런 조치를 통하여 5만명당 1대의 응급구조 차량이 배치되고, 2007년에는 응급구조 반경이 2~3Km가 되며 출동시간도 6분 이내로 된다.

(<http://www.ben.com.cn/WLZB/20060206/GB/WLZB^1643^2^06W131.htm>)

한줄 뉴스

- 영국 경찰, 미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압수 및 폐차 등 강력한 제재방안 도입 운영
- 북경시 2006년 2월 15일부터 번호판 없는 전동자전거의 도로주행에 2400원 벌금 부과
- 로스앤젤레스시 범죄와 홈리스를 줄이기 위한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 시행
- 로스앤젤레스시 만성 홈리스를 돕기 위해 '상설 부양 주택' 대량 건설 계획
- 영국 밀턴키인즈시 미래 주거변화를 수용하는 '슈퍼다이나믹(super-flexible)'공법을 밀턴키인즈 타텐호 공원(Tattenhoe Park)지역에 적용
- 영국 교통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철도와 역 폐쇄 정책 수립
- 동경도 '고령자 거주안정 확보에 관한 법'에 근거해 종신건물임대차사업 제1호 승인